

지역민간단체 유형별로 본 자원봉사 활동 및 네트워크의 특징: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선미(서울여대)

본 연구는 생활권 혹은 지역 단위의 시민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 속에서, 시민운동과 서비스 지향 자원봉사라는 기존의 이분법이 더 이상 의미 있는 구분이 되지 못한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내용과 네트워크에 있어 얼마나 다양한지, 다양하다면 어떤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 각 유형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원봉사의 지역사회 협력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평가되고 있는 서울시의 지역민간단체 22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지역민간단체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성의 기반, 자율성, 회원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 네트워크 등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우선, 각 유형별로 지역성의 기반이 다르다. 즉, 회원이 지역 주민이라는 것, 활동의 이슈 및 비전이 지역적이라는 것, 지역 비전 창출을 위한 동기 부여 등 세 가지의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한편 회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역적 비전이 강하고 주민 회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인 복지서비스제공형'에서 가장 낮았다. 자원봉사 활동 내용 및 네트워크 유형 역시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인 시민운동형'은 저소득층의 노동통합 지원활동, '주민참여형'은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과 교육활동,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자선, 마지막으로 '주민유대/재능기부형'은 상담과 문화활동 등에 주력하면서 각 활동에 적합한 네트워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로부터 자원봉사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시민성, 자원봉사, 지역민간단체, 지역성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서울여대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1. 서론

본 연구는 생활권 혹은 지역 단위의 시민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 속에서, 시민운동 분야와 서비스 지향 자원봉사라는 기존의 이분법이 더 이상 의미 있는 구분이 되지 못한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민간단체들을 사례로 하여, 자원봉사 활동 내용과 네트워크에 있어 얼마나 다양한지, 다양하다면 어떤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 각 유형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원봉사의 지역사회 협력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평가되고 있는 서울시의 지역민간단체 22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최근 자원봉사는 정부 중심의 상부하달식(top-down) 공공서비스 실행에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참여로 인식되기 시작함에 따라, 그 의미와 외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들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즉,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과거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인식되던 복지서비스 제공 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 배경과 역사를 가진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원봉사를 둘러싼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시 다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복지서비스 제공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에 주력하였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변동 속에서 전개되는 자원봉사 수요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김경동(2012)의 구분에 따르면¹⁾, 근대 초기 공동

체 기능의 대체 역할을 하던 자원봉사에서, 복지국가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보조·협력하는 자원봉사를 거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자원봉사로의 변화 요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존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던 서비스 제공과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적어도 자원봉사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활동과 이슈의 범위가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점차 특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단체뿐 아니라 권리옹호 단체도 그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 욕구를 이해하고 주민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단체들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이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업이나 네트워크 혁신을 꾀하려는 시도는 아직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지역 내 성격이 다른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상호 신뢰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1996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고, 2002년 전국 247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완료된 이후, 자원봉사센터는 국가적으로 범국민적인 자원봉사 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즉 지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그 주요 사업을 “지역사회 자원봉

1) 김경동(2012, 55)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래 단계별 변화에서 3단계가 되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단계는 전통적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단순 자원봉사 활동이 대두하는 시기로서, 이 때 대표적인 자원봉사가 교회 자원봉사이다. 2단계에서는 복지국가가 강화되면서, 국가의 복지 기능에 협력, 혹은 역할 분담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복지국가 기능의 후퇴와 함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자원봉사 수요가 증대하게 된다.

사진홍”과 그와 관련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다양한 성격의 지역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자원봉사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박치성 2006;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8), 한계가 뚜렷하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센터와 기존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던 서비스 제공 단체들을 중심으로 그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에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현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협력의 단위가 되는 단체들을 구분함에 있어, 활동영역(다문화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활동목적(권리옹호 중심의 시민운동단체, 휴먼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단체 등)에 따른 구분과, 자원봉사전문단체, 종교기관 등과 같이 위의 구분 어느 것에도 포함될 수 없는 단체들이 혼재되어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하나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점 단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서혜미·민소영(2012)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 연구는 강남구 디딤돌 사업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15개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그들 간의 밀도와 중심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에 흔히 사용되던 방식, 즉 임의의 여러 단체들을 대상으로 각 단체가 각기 맺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조사하는 대신,

한 네트워크에 속한 단체들 간의 협력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된 단체들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은 연구 비용이나 일반화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둘러싸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다양한 단체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탐색적으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 자원봉사 영역에서 향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지역민간단체와 자원봉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단체를 지칭하였다. 이 장에서는 왜 최근 다양한 지역민간단체들이 자선단체의 독점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왜 자원봉사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민간단체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²⁾

1) 시민사회 이론의 변화: 시민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90년 후반에 이르러 시민사회 논의의 열기는 급속히 가라앉았다. 전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국가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²⁾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또 하나의 논문 주제가 될 정도로 방대하고 정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에 기반이 되는 탐색적 연구로서, 현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서 얼마나 다양한 단체들이 부상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 논의는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국가가 시민으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할 것 같다는 근본적인 불안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에 의해 매개된 시민들 사이의 비인격적 관계에 대한 회의 역시 거세게 등장한다.³⁾ 역설적으로 바로 이 때 개인들이 지역에서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 논의에도 반영되었다. 복지국가에 의해 매개된 시민권(citizenship rights), 보편적 규칙과 규범에 의해 조절되는 비인격적 시민 관계에 대한 강조에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 관계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각 개인의 개별성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 시민권 논의에서 모든 ‘시민’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 앞에 평등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가지는 특수한 성장의 역사와 사정에 대한 배려를 결여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 것이다(Lehning 1998; Lister 2003). 각 개인의 개별적, 구체적 특성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기존의 시민사회 이론과 결합시키려 한 몇몇 시도들이 있었으나,⁴⁾ 최근에는 이 새로운 이론들조차 여전히 집단 중심적인 다양성 인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 이에 집단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개별 개인

3) 이 모든 변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시적 구조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초국적 기업의 등장과 국제협력의 강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상품, 자본 및 금융, 인구의 빈번한 이동 등으로 특징지어는 구조 변화는 교통통신의 발달, 특히 인터넷의 발달이라는 기술적 변화에 지지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SNS는 국가에 의해 매개된 익명의 시민 관계를 넘어, 일상적 상호작용, 개인 간의 면대면 관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 집단-인지적인 시터즌십(group-differentiated citizenship, Lister 2003)이나 다문화적 시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Kymlicka 1995)이 대표적인 이론들이다.

의 정체성 형성 관점에서 시티즌십 개념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Joseph 1999; Ong 1999).

둘째, 직접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 시민 관계가 시민 사이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에 반해, 이제는 당사자들의 물리적 현존 혹은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세계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자주 만나고 교류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Williamson, Imbroscio and Alperovitz 2002; Joseph 1999; Farber 2002).

셋째, 집단이라는 경계구분을 지양하고 ‘물 흐르듯 만났다 헤어지는’ 정체성을 가진 "유연한 시티즌십(flexible citizenship)"을 지향한다(Ong 1999). 기존의 시민사회와 시민권 개념이 국민국가 내 다양한 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성의 규칙과 규범을 공유하고 그것의 적용을 받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저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것의 기초 위에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포섭과 배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시민권 개념과 제도를 따라 다녔다고 비판되고 있다(Young 2000). 이에 비해, “유연한 시티즌십” 개념은 다양한 정체성의 구성 과정에 초점을 둬으로써 포섭과 배제를 지양하려는 새로운 접근의 결과물로서, 특히 글로벌 시대에 유용한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 때 지역은 과거 국민국가 시대에 비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람과 정보의 빈번한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시대에 지역은 대면 접촉을 통해 유연한 정체성 구성 과정에 결정적인 단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Cahoone 2001).

이렇게 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시민 관계가 바로 ‘이웃 관계’이다. 이웃 관계는 추상적 인격을 뜻하는 시민 간의 관계라

는 한편과, 일상에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위 사적 영역의 가족 및 친구라는 다른 한편, 바로 그 사이에 존재한다. 그 사이에 나의 '신뢰하는 이웃(fellow citizen)' 관계가 위치한다. 이웃 관계에서 모든 개인은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시민성의 보편적 규칙과 규범의 공유를 서로 기대하며 격려하되, 직접적 관계맺음의 회복을 통해 각 개인의 개별성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상호 기대한다. 요컨대 새로운 시민사회 이론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물리적 현존이 가능한 지리적 범위 안에서 시민성의 규칙과 규범을 공유할 것을 서로 기대하며 격려하는 '이웃 관계'의 형성이 관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Offe 1999; Luhmann 2000).

2) 지역민간단체와 자원봉사: 새로운 이웃 관계 형성에 필수불가결의 요소

위와 같은 지적 변동의 흐름을 고려할 때, 최근 다양한 성격의 지역 민간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해 보인다. 복지국가 서비스 전달체계의 보조 기능에 한정되었던 자원봉사가, 그간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내심 평가절하 하던 시민운동단체뿐 아니라, 마을만들기 등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자발적 이웃 모임 등, 거의 모든 지역민간단체들에게 핵심적인 활동 내용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서 권리옹호 활동과 복지서비스 활동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변화 경향을 포착한 것이다. 과거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결과물에 초점을 두던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상호관계 훈련과 평생학습, 즉 지역 주민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다양한 교육활

동이 전개되면서, 시민운동의 변화 방향과 교차되는 지점이 형성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 대상과 내용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급속히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자원봉사 연구의 대상이 좁은 의미의 ‘순수 자원봉사단체’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지역민간단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연구에서 대상을 지역민간단체로 확대한다는 것은 시민성의 규칙과 규범에 뿌리내린 새로운 이웃 관계가 자원봉사를 매개로 어떤 협력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민간단체는 특정 지역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조직화된 형태로 활동하는 자발적 결사체를 의미한다. 지역민간단체에는 운영위원회 등 조직의 요소를 갖춘 큰 규모의 공식적 단체에서부터 규모면에서 회원수가 작고 조직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비공식적 모임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지역민간단체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이라는 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둘째, 의제 차원에서 이른바 ‘중양’이 아닌 지역의 사안에 관한 활동을 주로 한다는 의미에서 의제가 지역적인 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제 차원에서 지역민간단체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 등의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거시적인 의제들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환경, 문화, 공동체, 교육 등의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 접촉과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기존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사회구조 및 제도의 변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면, 지역민간단체는 활동에 관계된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Silverman 2004).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지역민간단체는 어떤 조직 유

형을 가졌건 상관없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혹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게 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 관계, 즉 이웃 관계의 형성을 위해 자원봉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목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직접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스토리’와 개별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 형성은 자원봉사로 나타난다(Faber 2002).

특정 지역이라는 물리적 기반, 지역에 특화된 의제, 회원 역량강화 등 지역민간단체의 공통 특징에서 출발하되, 자원봉사와 관련된 지역민간단체의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석 도구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지역기반성의 종류이다. 지역기반성은 지역민간단체가 물리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회원의 구성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될 것’과, 지역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 이슈와 비전이 지역적일 것,’ ‘지역적 비전 창출을 위해 동기 부여할 것’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중심으로 지역민간단체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는 자율성의 기반이다. 지역민간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주로 의존하는 재정적 기반을 중심으로 자율성의 기반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민간단체의 유형별로 회비, 공모사업, 수익사업, 후원금, 정보보조 등 다양한 재정적 기반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율성 기반의 다양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가 역시 자율성의 기반이 된다. 자율성 기반은 단체의 조직적 특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킹의 특성 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셋째, 회원역량강화, 즉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이다. 지역민간단체의 다양성은 ‘스스로 그리고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자원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회원 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그 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단을 설정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등, 양적 연구의 전형적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방법은 과학적 엄밀성과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광범위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의 이론 및 연구 결과와는 다른 새로운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민간단체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모집단을 정할 때 흔히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한국민간단체총람 등에 등록된 단체목록을 활용하거나, 좁은 의미의 지역풀뿌리 단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등록 단체, 좁은 의미의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등을 모집단으로 정하곤 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새로운 현상, 즉 지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혹은 주민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을 포괄하는 모집단 리스트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모집단 리스트 자체가 시민사회운동과 서비스 제공으로 양분화되었던 한국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단체이건 지역의 다른 조직들과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한다. 그 네트워크의 유형은 각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원봉사 활동 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활동 내용의 특징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집단을 엄격히 설정한 기존의 양적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

사례연구는 이러한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사건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실생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주로 다룰 때 사례연구가 사용된다. 인(Yin 2011)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특정 사회 현상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기술해야 하는 경우와 현실 세계 사건들을 의미 있게 담아내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이미 잘 알려진 이론을 검증 혹은 반박하여 확장하는 경우,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 사례연구는 비록 학문적인 엄격성과 정확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수용되고 있다.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엄밀한 정의(definition)와 모집단 확정 대신 하나의 단순한 제외 기준만 적용하였다. 즉, 중앙조직의 지부로서 본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 사업비가 아닌 경상운영비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단체를 제외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에서 활동은 하지만, 중앙 조직의 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지역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

사례연구 대상의 예비선정을 위해 먼저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된 지역민간단체 리스트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단체 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지역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3명의 전문가 추천을 받았다. 운영기간(10년 이상, 5-10년, 5년 미만, 1년 미만), 활동내용(공익활동, 순수봉사단체, 자조단체), 자원봉사센터

⁵⁾ 시민단체 중 중앙 조직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재정과 운영주체 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단체들은 지역민간단체에 포함된다.

와의 친밀성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들을 가능하면 다양하게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검토를 거친 후 각 단체에게 연구 참여 요청을 하였다. 이 때 꾸준한 활동과 일정한 성과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22개 단체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FGI)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26일 ~ 10월 5일 기간 동안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설문 내용은 기본 정보 및 조직 형태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표 1>과 같다. 구조화 혹은 반구조화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는 집단인터뷰를 좀 더 역동적이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연구자가 사례연구 대상 단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가지고 집단인터뷰에 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표 1> 설문 조사 내용

단체의 역사와 활동 내용 및 지리적 활동 반경	단체창단일(단체활동년수), *단체창단계기, "주요활동(3가지), *사업대상지역(서울시, 구단위, 서울시+그외 광역시 등)
단체의 회원과 재정	전체등록회원수(회원규모), 적극활동인원수, 적극활동회원의 평균적 활동빈도, 회원(구성원)의 특징(성별비율, 연령별비율), 예산충원방법(회비, 공모사업, 수익사업, 후원금, 정부보조)
회원 역량강화	*회원을 위한 교육(교육기관, 교육내용, 참가인원, 운영형태),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
네트워킹 단체	*주로 네트워킹하고 있는 기관/단체 이름 5개

주1) * 표시된 것은 집단인터뷰를 위한 사전 조사로서 반구조화된 질문형식으로 제시되었음.

동일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인터뷰를 4대 권역별로 각 1회

씩 총 4회 실시하였다. 집단인터뷰는 주로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동 내용과 네트워크 방식,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3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자유 토론, 단체 소개 워크숍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지역민간단체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자원봉사 활동 내용과 네트워크 특징을 파악하였다.

2) 연구대상 단체의 일반적 특성

설문과 집단인터뷰에 참여한 단체는 총 22개였다(<표 2> 참조). 그런데 그 중, <사례22>는 조사 결과 5명의 회원을 가진 소규모 재능기부 단체로서 설문 조사 중 양적 자료 대부분에 응답하지 않아 통계적 분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아래 <표3>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였는데, 좌측에는 <사례22>를 제외한 21개 단체의 활동년수, 회원, 재정기반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였다. 이 중 <사례11>은 표면적으로 풀뿌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인터뷰 결과 알고 보니 학교를 기반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 명목회원의 규모가 매우 컸고 단체 활동 내용도 다른 단체들과 비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표 3>의 우측에는 이 단체를 제외한 20개 단체의 기초통계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활동년수를 보면, 2년 3개월~18년으로서, 평균 9년의 활동기간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사례 번호	창립 일	주요활동	활동 지역	등록 회원	적극 회원	여성 (%)	50대 이상 (%)	예산승원
1	2005.12	동네산의 생태보존활동과 중요성알리기, 정기적인 생태교육, (청소년교육) 동네산 각 분야별 생물 모니터	강동구	100	40	30	0	회비, 공모사업
2	2003.01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동화구연, 마술, 노인운동	서울, 경기, 강남	32	21	100	100	회비, 수익사업
3	2003.08	시각장애인 동반 산행 안내,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캠프행사(1박2일),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참여 등	서울 등 전 지역	40	12	45	100	회비
4	2006.01	찾아가는 공연,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및 말버너투기, 발벗어드리기, 홀몸 어르신택 지원	서울, 경기도 인근	63	35	70	15	회비, 공모사업
5	1998.02	장애여성 역량강화,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장애여성독립생활 지원		260	50	80	20	공모사업, 후원금
6	1998.12	어린이 집, 유치원 등 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상,하반기 빛그림 행사	서울 서초구, 광진구	30	11	100	70	기타
7	2010.06	사랑의 밑반찬 배달사업(연중),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어르신 무료 영정사진 촬영, 무료세탁사업 및 무료급식	마포구	164	30	90	80	수익사업, 후원금, 개인(사비)
8	2009.01	수지침, 빨래방, 발맞사지, 약손	관악구	130	70~80	90	60	회비, 공모사업, 수익사업, 후원금
9	1998.01	관내 어려운곳에 물품봉사, 노력봉사, 지역한마당 축제	구로/관악	48	30	98	90	회비, 수익사업
10	2003.04	홀로 사시는 노인 및 소외된 사각지대 장애인 기타 등을 반찬지원, 물품지원, 전기, 보일러, 기타 등등		110	60	80	70	회비, 후원금
11	1993.11	체조꿈나무 및 소년소녀 가장지원, 장애인 시설지원활동, 취로 사업자/경로정/독거노인/잡천용사 지원 봉사	서울시 마포구, 수원	1603	1000	90	60	회비, 후원금
12	2008.05	청소년/가족 문제 상담	금천구	10	10	100	60	회비
13	2005.09	지역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건강, 환경 교육/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여성 인력 양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참여 활동 (예:중앙구 의회 의정 모니터팀)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광진구, 성북구	205	50-60	90	0	회비, 공모사업, 후원금
14	2001.02	행정 및 권력감시활동, 지역시민단체 연대 활동,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동구, 송파구	220	25	20	5	회비, 후원금
15	2005.05	성 평등을 촉진하는 활동, 풀뿌리 공동체를 형성 및 강화 활동, 청소년 교육 및 지원	서대문구	150	20	85	20	회비, 공모사업, 후원금
16	2001.03	저소득층 지원 나눔사업, 지방정부와 의회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자치 활동, 지역 풀뿌리 단체들과 네트워크	광진구	550	50	70	50	회비, 공모사업, 수익사업, 후원금
17	2010.02	지력이분양 및 화단가꾸기, 지역약전망구 축(신대여성가리상담, 마을공원에서 비포럼 배움터, 이동지킴이집 순회 방문), 도시 농부학교 및 도시 농업	동작구, 관악구	180	60	90	15	회비, 공모사업

지역민간단체 유형별로 본 자원봉사 활동 및 네트워크의 특징: 서울시를 중심으로 53

18	2002 .10	어르신/장애인 국 풀여드리기, 김장나누기,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부식지원	노원구	100	30	85	70	수익사업, 후원금, 보조금
19	2009 .03	문화교육, 초중고 경정고시 교육,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증진활동	서울 전역	139	22	90	0	회비, 공모사업, 수익사업, 후원금, 구청 교육청 사업비
20	1996 .04	이웃사랑, 사랑의 책 배달부, 조식지원-미숫가루교토젝트	수유동	120	30	85	40	회비, 공모사업, 후원금
21	2007 .06	소년소녀가장들 저소득층 아동 무료 방과 후 수업, 중환자 봉사, 독거노인/차상위 계층 이미용봉사	성북구	300	200	60	10	후원금
22	2011 .06	지역역사와 정서를 반영한 문화예술작품 개발 및 제작 지역 비전문화예술단 운영 컨설팅	성북구	-	5	-	-	-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

		기초통계1					기초통계 2 (<사례11> 제외)				
		N	최소	최대	평균	S.D.	N	최소	최대	평균	S.D.
활동년수 (2012년 8월 기준)		21	2.3	18.1	9.1	4.7	20	2.3	16.5	8.6	4.3
회원수	등록회원수	21	10	1603	2169	3996	20	10	550	147.6	123.4
	적극회원수	21	10	1000	88.9	2126	20	10	200	43.3	41.1
활동빈도	활동빈도	21	1	5	2.7	1.2	20	1	4	2.6	1.1
회원구성	여성비율	21	20	100	78.5	22.4	20	20	100	77.9	22.9
	오십대비율	21	0	100	45.5	33.8	20	0	100	44.8	34.5
예산 충원 방식	회비	21	0	1	0.8	0.4	20	0	1	0.8	0.4
	공모사업	21	0	1	0.5	0.5	20	0	1	0.5	0.5
	수익사업	21	0	1	0.3	0.5	20	0	1	0.4	0.5
	후원금	21	0	1	0.6	0.5	20	0	1	0.6	0.5
	정부보조	21	0	1	0.1	0.3	20	0	1	0.1	0.3

- 주1) 적극활동회원의 평균적 활동빈도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것을 “1=주3회이상, 2=주2회, 3=주1회, 4=년1~3회, 5=비정기적”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 주2) 회원(구성의 특징)은 전체에서 여성회원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회원에서 50대 이상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 주3) 예산충원방식(회비, 공모사업, 수익사업, 후원금, 정부보조)은 각각에 대해 ‘없음=0’, ‘있음=1’로 더미변수화 하여 사용하였음.

4. 연구결과

1) 지역민간단체의 조직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유형 구분

회원구성과 재정기반이라는 조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먼저 조직적 특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변수들, 즉 회원구성(등록회원수, 적극회원수, 50대 이상 회원의 비율, 성별 구성), 재정자원 기반, 적극적인 회원의 활동 빈도를 활용하여, 다차원척도법(MDS)으로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을 구하였다.⁶⁾ MDS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하되 집단인터뷰 결과를 참고로 하여 풀뿌리 단체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각을 ①전통적인 시민운동형(사례5, 사례13, 사례 14, 사례15, 사례16, 사례19, 총 6개 단체), ②주민참여형(사례1, 사례17, 사례20, 총 3개 단체), ③전통적인 복지서비스제공형(사례3, 사례8, 사례18, 총 3개 단체), ④주민유대/재능기부형(사례2, 사례6, 사례7, 사례9, 사례10, 사례 12, 사례21, 총 7개 단체)이라고 명명하였다.⁷⁾ MDS 분석과 인터뷰 분석을 종합한 결과 매우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 전형성의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11>, <사례

6) 다차원척도법은 제시된 변수들의 값을 기초로 사례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비슷한 사례들은 가까운 거리에, 서로 다른 사례들은 먼 거리에 위치하도록 거리를 표시하는 통계기법이다. 분석 변수들이 비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거리행렬을 계산하여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을 구하였다. 변수값들은 Z score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지면의 제약상 MDS 결과 도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7) 주민유대형과 주민재능기부형은 사실상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유형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조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일차 분류에서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실제로 두 유형 간에는 지역기반성, 자율성, 회원교육에 대한 관심, 네트워크 등 거의 모든 기준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자원봉사단체라는 점,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작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22>, <사례4>는 유형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 및 집단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기반성, 자율성, 회원역량강화, 네트워킹 등의 4가지 차원에서 각 유형별로 전형적 특징이 드러났다.

2) 지역기반성과 재정적 자율성

각 유형별로 지역민간단체의 지역기반성은 크게 회원의 구성, 활동 이슈 및 비전의 지역성(혹은 단순히 활동 공간으로서 지역 활용),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독려 활동 등의 세 가지 요소가 <표 4>와 같이 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단체유형별 지역기반성

	회원 구성의 지역성	이슈 및 비전의 지역성 (혹은 활동 공간으로서의 지역)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독려 활동
전통적 시민운동형	낮음	낮은 지역적 비전/ 활동공간으로서의 지역	약한 편
주민참여형	높음	높은 지역적 비전	매우 강함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	매우 높음	낮은 지역적 비전/ 활동공간으로서의 지역	약한 편
주민유대/재능기부형	높은 편 (다양함)	매우 낮은 지역적 비전	약한 편

전통적 시민운동형은 다양한 지역 출신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울 전역 혹은 주위 지역과의 연대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원 구성의 지역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적 비전이 약하고 활동 공간으로서만 지역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

다. 따라서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독려 수준도 낮은 편이다. 몇몇 사례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이 유형 역시 지역 고유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기보다는 자선이라는 보편적 비전을 가지고 지역이라는 공간을 활동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에서 활동은 하지만, 봉사단체의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은 회원의 지역기반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회원의 지역기반성이 낮은 전통적 시민운동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은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높은 활동 빈도를 요구하는 노력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중심의 회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주민참여형 유형은 동네산 생물 모니터링, 지역숙제방, 이웃산타 등 지역의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이를 위한 활동을 독려하는 일에 자원봉사 활동이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OO산 살리기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체 사회를 위한 비전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구체화시킴으로써 비전 자체가 지역적이다. 또한 회원 구성의 지역기반성 역시 높았다. 회원이 주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및 주민 교육 활동이 자원봉사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유대/재능기부형은 회원이 주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차원의 지역적 특징을 찾기 어렵다. 회원 구성의 지역기반성도 주민유대형의 경우는 비교적 강하지만, 주민재능기부형은 강하지 않다. 이 유형의 경우, 보편적 비전이나 지역의 문

제 해결을 지향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 간의 유대 및 재능 활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자율성에 관해 보면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시민운동형은 회비, 공모사업, 후원금 등 재정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수익사업 의존도는 낮은 반면, 공모사업 의존도가 높았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회원의 자기주도성이 강하다. 주민참여형은 회비, 공모사업이 주요 재정 자원이며, 활동 내용 결정에 있어 회원의 자기주도성이 강하다. 한편,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은 수익사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반면 공모사업 의존도는 낮다. 활동 내용 결정에 있어 회원의 의견보다는 복지관 등 지역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유대/재능기부형은 회비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에서도 주민유대형은 활동 내용 결정에 있어 회원의 자기주도성이 강하고 창의적 활동이 많은 편인 반면, 주민재능기부형은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회원들 간의 연대가 부족하거나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 내용 결정에 있어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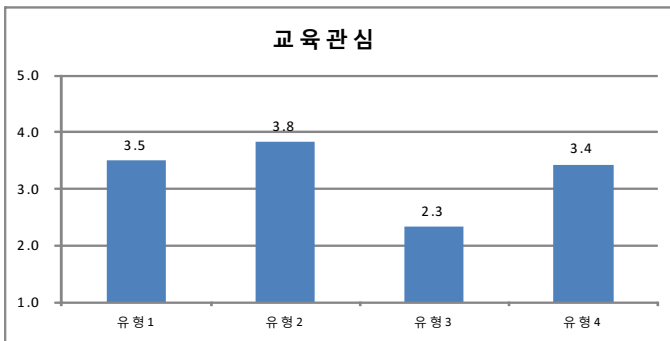
3) 회원 역량강화

회원들이 어느 정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단체가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먼저, 회원이 교육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주민참여형과 전통적 시민운동형에서 회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에서 교육적 관심이 가장 낮았다.

전통적 시민운동형과 주민참여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특히 (비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단체가 수행하는 특화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화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주민 대상의 자원봉사 기초교육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일반 주민들의 요구나 눈높이를 잘 못 맞춘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과 주민유대/재능기부형 중 가치(비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한 단체도 없었다. 그보다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이나 자원봉사자 관리 교육에 해당하는 상담가교육 등을 주로 받고 있어 활동의 전문성보다는 자원봉사 활동 및 팀 운영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기초교육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주민유대/재능기부형은 가치(비전)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재능기부 봉사라는 특성과 연관된, 혹은 주민(회원)간 유대증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들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그림 1〉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



주1) 질문: 회원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입니까? 1=관심이 매우 낮다 ~ 5=관심이 매우 높다

주2) N=19

주3) 유형1: 전통적 시민운동형, 유형2: 주민참여형, 유형3: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 유형4: 주민유대/재능기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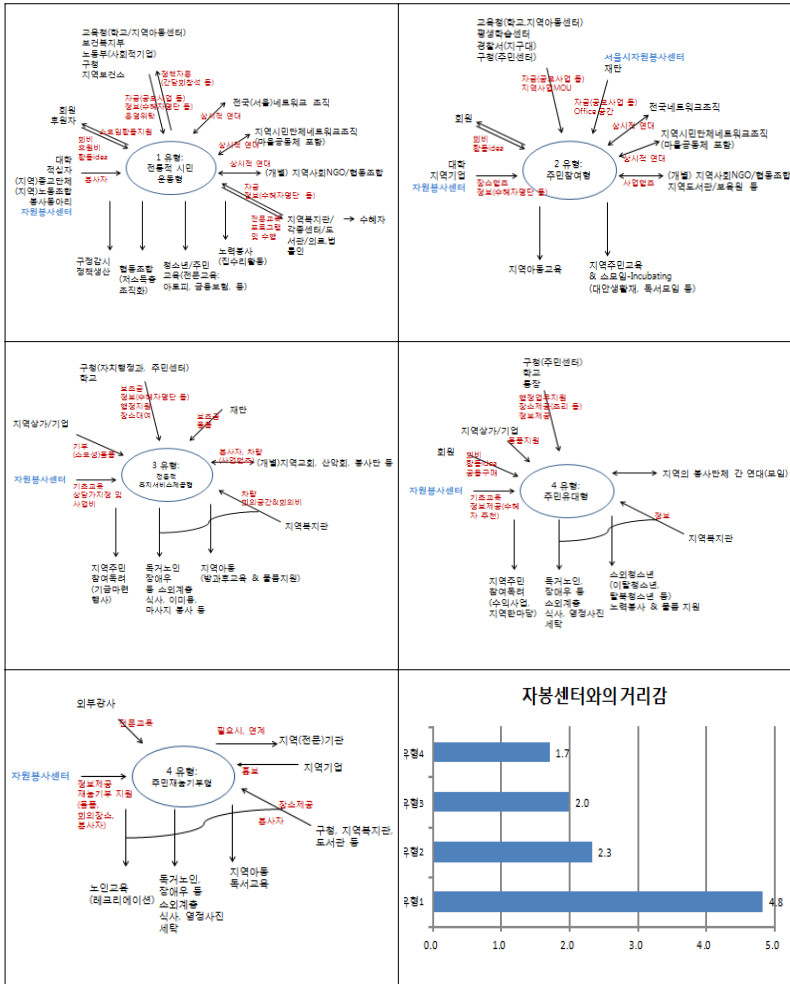
4) 지역사회 네트워킹

집단인터뷰 분석에서 활동 내용 및 지역사회 네트워킹에서 유형별로 뚜렷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다음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그림의 하단에는 단체들이 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 좌측에는 긴밀하게 협조하는 지역 내 단체 및 기관들, 우측에는 연합 활동 혹은 연합체, 상측에는 공공기관들을 배치하여 네트워킹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자원봉사센터와의 거리감은 워크숍에 참석한 연구참여자에게 자신의 단체가 어느 정도 자원봉사센터와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0 ~ 5로 표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면 0, 가장 멀다고 생각되면 5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전통적 시민운동형은 협동조합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활동(저소득층 노동통합 부문), 청소년 및 주민 교육, 집수리 활동 등에, 주민참여형은 소규모의 대안생활교육 및 독서모임 등 소위 지역혁신 부문에, 다음으로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은 노인, 장애우 등 소외 계층과 지역아동 방과후활동 등 전형적인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유대/재능기부형은 활동의 내용면에서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주민유대지향적 단체의 경우 전통적인 노력봉사 활동 외에 지역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한 수익사업이나 지역한마당 등과 같은 독자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민재능기부형은 회원 재능의 성격에 따라 독서교육이나 노인레크리에이션 등 세분화된 특정 분야의 활동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네트워킹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각 유형별 활동 내용 및 운영 특성에 따라 긴밀하게 협조하는 단체 혹은 기관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림 2〉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봉사센터와의 주관적 거리감



주1) 자원봉사센터와의 거리감은 자신의 단체가 어느 정도 자원봉사센터와 가깝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면 0, 가장 멀다고 생각되면 5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주2) 유형1: 전통적 시민운동형, 유형2: 주민참여형, 유형3: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 유형4: 주민유대/재능기부형

전통적 시민운동형은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 공공기관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전국(혹은 서울) 연대조직과 연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외에도 대학,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 및 단체들과 다양한 방식의 자원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민참여형도 전통적 시민운동형과 마찬가지로 중앙 및 지역 공공단체, 전국적 연대조직 등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나, 지역 기업과의 협력, 공모사업 수행 형식을 통한 공공기관들과 협력이 좀 더 활발하다.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에서는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와의 네트워킹이 주축을 이룬다. 한편 위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주민유대/재능기부형은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재능기부 중심 단체와 유대 중심 단체가 명백히 구분된다. 주민재능기부형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센터가 주로 다른 기관 혹은 단체들과의 연계를 담당하고 이들 자원봉사단체는 주로 활동만 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주민유대형은 지역 공공기관, 기업 및 상가, 타 지역 자원봉사단체들과의 연대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5)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의견과 기대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의견과 기대를 정리하였다. 주민유대/재능기부형,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 주민참여형, 전통적 시민운동형의 순서로 자원봉사센터와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주민유대/재능기부형과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이 느끼는 자원봉사센터와의 친밀감은 자원봉사센터와 이들 단체 간의 기능적 상호의존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단체 혹은 기관과의 네트워킹이 부족한데, 이들과의 상시적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체 리더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 결과 지역사회 네트워킹과 단체의 조직운영 전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에 기대한다.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활동들이 주로 국가 복지 전달체계에 속한 단체(소위 ‘수요처’)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일이나,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파트(마을)자원봉사팀이나 재능 자원봉사를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들 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킹을 맺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집단인터뷰 중 제기되었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 및 평가의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 먼저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은 비교적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센터는 우리에게 부족한 행정상의 전문성을 보완해준다.”

“센터는 우리의 활동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우리는 센터의 활동에 협조한다.”

“지역사회네트워킹을 잘 못하여 지역사회 자원 동원 역량이 미흡하다.”

“우리가 주체적일 경우, 센터의 역할은 주로 시간점수 관리에 있는데, 시간점수관리는 문제가 많고, 센터도 그 대가로(?) 자원봉사단체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기대/요구로는 일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에 수혜자와의 갈등 상황 혹은 소통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았고, 이에 대한 수혜자 대상별 소통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분적이지만 자원개발수단에 대한 직접적 정보 제공이나 관련 교육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주민유대/재능기부형 역시 비교적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만족스러워 하였는데, 단, 전문봉사라는 특성상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유대/재능기부형에 속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센터는 우리 단체의 탄생과 자원개발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래서 우리도 적극 협조한다.”

“센터는 자원봉사기초 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나 교육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리더인 내가 받고 내가 회원을 교육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주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우리는 관의 관리/규제 없이 조용히 일하고 싶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요구로는 ‘다양하면서도 좀 더 진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회원교육에 대한 요구 및 자원봉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체계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그 외에 공모사업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립적 단체 활동을 위한 물질적 지원, 정보 차원의 지원, (특히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약한 경우) 사업 홍보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반하여, 전통적 시민운동형과 주민참여형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자원봉사센터는 단순노력봉사활동만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과 상관이 없다. 단순노력봉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참여'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듯하다.”

“단순자원봉사자 배치에서도 (자원봉사자교육이 잘 안되는 등) 센터의 역량이 부족하다.”

“센터가 우리가 하는 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지나치게 자체 활동에 집중하여 네트워킹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주로 시간관리, 물품지원 정도에 제한되어 있어 우리 활동의 필요를 못 채운다.”

“단순자원봉사자 배치에서도 (자원봉사자 마음준비 교육이 안되는 등) 센터의 역량이 부족하다.”

“일시적 자원봉사자보다는 지속적이고 참여적인 회원을 원한다.”

“센터가 우리가 하는 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주민 역량강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전통적 시민운동형의 기대/요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런 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봉사활동도 있어’ 하고 알려주고 전파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회원 중심 활동에 익숙하지만 일반주민들에게 활동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혜를 받는 사람이 그냥 받기만 하기보다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관주도-민동원이 아닌, 동등한 의미의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도 위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기대/요구로는 “회원 역량강화 교육 및 ‘뜻을 같이 하는’ 회원 모집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전문적인 회원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등이 대부분으로서, 자원봉사센터가 단순하고 일회적인 사업 보다는 주민 역량강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5. 결론

최근 국가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시민사회 분야 모두에서 자원봉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원화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는 22개 단체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에서 자원봉사는 이미 전통적 복지서비스를 넘어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원봉사 영역에서 지역민간단체의 다양성은 지역기반성, 자율성,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 정도, 네트워크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고찰되었다. 먼저, 지역민간단체의 지역기반성은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다양하다. 즉 지역 주민이 회원이라는 것, 활동의 비전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것, 지역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갖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한편 회원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역적 비전이 강하고 주민 회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형에서 가장 컸으며, 전통적인 복지서비스제공형에서 가장 낮았다. 자원봉사 활동 역시 각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 시민운동형은 저소득층의 노동통합 지원활동, 주민참여형은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과 교육활동,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자선, 마지막으로 주민유대/재능기부형은 상담과 문화활동에 주력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봉사활동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원하는 네트워크 역시 각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사회 파트너십을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례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단체 유형별 지역기반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민참여형만이 지역적 비전, 회원의 지역기반성, 지역에 대한 관심 독려 활동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지역기반성을 보이고 있고, 그 외 단체들은 활동 공간이 지역이라는 점 혹은 회원이 지역 주민이라는 점 등에서만 지역기반성이 부각될 뿐, 상대적으로 지역적 비전이나, 지역에 대한 관심 독려 활동이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어느 하나의 기준만이 지역기반성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단체이건 향후 지역적 비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그 보편적 이상에 비추어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전략을 구체화해서 지역의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유대/재능기부형은 회원들에게 참여의 도구적 동기를 넘어서 수 있는 비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간이 지역이라는 것, 회원이 주민이라는 것을 넘어서 경험세계를 공유하기 위한 간주관적 의미 부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과 주민유대/재능기부형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단순 기술 교육으로만 관심이 제한된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전통적 시민운동형이나 주민참여형의 경우 주민 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한 단체들 간의 상호 교육의 기회 제공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민운동형 단체들은 지역 주민

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대민 접촉의 노하우를 얻기 위한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상호 교육의 장이 양쪽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볼 때, 전통적 시민운동형은 중앙의 공공기관 및 연대활동 기반이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크가 제한되어 있다. 이에 비해 주민참여형은 중앙과 지역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고르게 형성되어 있다. 단, 주민참여형은 이러한 고른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수행에 강한 동기 부여와 전문성을 가진 회원들을 구하기 쉽지 않다. 회원의 심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도 이러한 사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회원의 심화 교육은 매우 전문화된 수준으로서, 일반 자원봉사 교육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전문 교육을 위한 (온라인) 글로벌 네트워크나 -현재는 특정 재능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민참여형 재능기부 단체를 좀 더 다양화하여 새로운 프로보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민유대형은 비록 활동 내용은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과 유사하지만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공기관 및 단체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동원해 자원봉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 이 경우 ‘비전’보다는 회원의 유대라는 도구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하여 큰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이르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집단인터뷰 중에도 ‘이 정도 활동하면 됐지. 더 이상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금씩 구축되어가는 자원동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좀 더 큰 지역적 비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학의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이해를 돕고 관심을 독려하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과 주민재능기부형의 네트워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단체들이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들의 성격 역시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자원동원 네트워크링 능력이 약한 이들 단체들은 활동을 위해 공공 행정 기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지속적인 행정 기관의 도움 제공은 그 반대급부로서 이들 자원봉사단체에게 ‘동원’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도움제공과 동원’을 일종의 주고 받기 교환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인 자원동원 네트워크링 능력의 교육과 성취 경험 제공은 자원봉사센터, NPO 센터 등 자원봉사 지원 기관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셋째, 주민참여형, 전통적 시민운동형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주민유대/재능기부형조차도 센터에 대한 거리두기가 진행 중이다. 즉, 교환이라는 점에서는 ‘지금은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으니 센터에게도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에는 ‘우리는 관의 관리나 규제 없이 조용히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보다는 회원유대나 개인의 재능 활용이라는 도구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참여의 중심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상부하달의 행정 체계의 하나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욕구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수록, 그리고 특정 단체 유형에 제한된 지원 활동과 관료적 방식을 지속하는 한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주로 구체적인 봉사 일거리 제공, 행정상의 전문성 보완(보고서쓰기 등) 등을 통해, 독립적인 자원동원 네

트위킹 능력을 결여한 단체들을 지원하며 그 ‘대가’로 센터 활동에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라면, 이러한 파트너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주민유대/재능기부형이 증가할수록, 시간등록과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동원하는 관료제적 조직 운영으로는 지역사회 파트너십에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지역적 비전 공유와 공공성 증대라는 목적 아래에서 다양한 성격의 단체 활동을 이웃 관계로 수렴하되 적절하게 역할 분담할 수 있게 조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의 자원봉사단체와 권리옹호의 시민운동단체라는 이분법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이 두 유형을 포함한 다양한 성격의 지역민간단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탐색적 연구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서울의 지역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향후 이들 단체들이 어떤 협력과 갈등을 통해 가족 및 친족 관계와 시민 관계를 넘어 새로운 이웃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자원봉사 유관 기관들이 어떤 지원을 해야 하며 어떤 조직적 혁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토론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2015년 4월 13일 접수, 5월 19일 심사완료, 5월 20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권미영. 2008. “자원봉사가 갖고 있는 시민운동성의 재발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2회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 김경동. 2012. 『자발적 복지사회』. 아르케.
- 김진학. 2012.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과제: 기초자치단체 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제98호. 9-22.
- 박치성. 2006. “사회서비스 비영리조직들의 협력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0(4). 353-376.
- 블런티어21. 2000. 『풀뿌리 조직 자원봉사의 시작과 성공: 풀뿌리 조직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
- 서혜미·민소영. 2012. “지역기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 연구 -강남구 디딤돌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2). 89-108.
- 이 호. 2002. “주민자치운동의 현황과 과제”. 시민자치정책센터. 『풀뿌리는 느끼게 질주한다』. 갈무리.
- 이 호. 2010. “네트워킹하고 그라운드 워킹하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좋은 정치』. 이매진.
- 이관희·최병대. 2009. “한국의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3호.
- 인(Yin), 로버트 K. 신경식·서아영(공역). 『사례연구방법』. 한경사.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8.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구축」.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31-256.
- Almond, G. A. and Verba, S. 1989. *The Civic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
- Arthur, J, Davies, I, and Hahn C. (eds). 2008. *SAGE Handbook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emocracy*. London: Sage publication.
- Cahoone, Lawrence. 2001. “Locale and Progress.” *Rethinking Place an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ug. 31, 2001).
- Faber, Brenton D. 2002. *Community action and organizational change. Image, Narrative,*

- Identity.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Silverman, Rober Mark (ed.). 2004.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he intersection of social capital and local context in contemporary urban society*.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Frazer, Elizabeth. 2008. "Key Perspectives, Traditions and Disciplines: Overview." in J. Arthur, I. Davies and C. Hahn (eds). *SAGE Handbook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emocracy*. London: Sage publication.
- Calhoun, C. (ed.). 1992.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IT Press.
- Joseph, May. 1999. *Nomadic Identities. The Performance of Citizenship*.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hning, Percy B., 1998, *Towards a Multicultural civil society: The Role of the Social Capital and Democratic Citizenship. Government and Opposition*, London: Spring.
- Lister, Ruth. 2003 [1997] .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Luhmann, Niklas, 2000,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edited by Diego Gambetta(1988), Oxford: Blackwell. Electronic edi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Oxford. 94-107.
<<http://www.sociology.ox.ac.uk/papers/luhmann94-107.doc>>
- Offe, Claus. 1999. "How can we trust our fellow citizens?."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ng, Aihwa. 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Papastephanou, Marianna. 2008. "Philosophical Presuppositions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Political Liberalism." in J. Arthur, I. Davies and C. Hahn (eds). *SAGE Handbook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emocracy*. London: Sage

publication.

Shafir, Gershon (ed.). 1998. *The Citizenship Debates*.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Williamson, Thad, David Imbroscio, and Gar Alperovitz. 2002. *Making a Place for Community: Local Democracy in a Global Era*. London:Routledge.

Young, I.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Diversity of service-providing organizations and networks in
community: Case studies on selected service-providing
organizations in Seoul

Seon Mi Lee

Korean civil society has been marked by the dichotomy of (radical) civil movement and (conservative) service-providing, which seems to fade out and give way to diversity at local level. The study aims at investigating diverse types of volunteer work and network of service-providing organizations dedicated to welfare of their communities. We selected 22 cases of the service-providing organizations working in Seoul, conducted research on their volunteer works and network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ervice-providing organizations for community are diverse in both political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type. They can be differentiated into 4 types; (2) 'Locality' which they utilize in presenting themselves has three factors, which composition defines each type of organizations. They include locality as member with they work, locality as space where they work, and locality as agenda for they work; (3) High motivation toward advanced training of their members for the volunteer actions is shown by the type of organizations based on highly community-specific vision and local residents in its members, whereas traditional type of service club presents the lowest level of motivation toward the training for more effective actions; (4) The 4 different types organizations ar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in their volunteer works: supporting reintegration of the social minority groups into

labor market (type 1), activities and educ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ype 2), charity for the poor, the disabled, the elderly (type 3), consulting children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and the elderly for social minority (type 4). Accordingly, each organization utilizes different networks for getting its volunteer works done successfully.

In conclusion, the author summarizes the main findings, and comes up with some suggestions for partnership in communities.

key words: citizenship, volunteering, voluntary association, locality, community

